

한·중 ‘코/鼻’ 관련 관용어 대조연구

정윤정*

-차 례-

1. 서론
2. ‘코’와 ‘鼻’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3. 한·중 ‘코/鼻’관련 관용어의 분류 및 대조
 - 3.1 ‘코/鼻’의 형상(形象)관련 관용어
 - 3.2 ‘코/鼻’의 기능(技能)관련 관용어
4. 결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polych@hanmail.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 몸의 오관(五官)에 속하는 코를 주제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코’와 ‘鼻’ 관련 관용어의 출현 양상과 그 의미를 대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인간은 언어적 개념을 정립할 때 먼저 신체로부터 시작해 사물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것을 다시 추상적 대상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관용어에도 다양한 신체어가 등장하는데, 본래의 신체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신체 측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 성격, 상황, 기준, 가치, 상태 등 다양한 의미로 분화 발전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코/鼻’ 관련 관용어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을 분류 및 대조하여 양 언어의 문화 내에서 다르게 발생한 여러 의미 양상을 대조한다. 관련 관용어의 분석을 위해, 먼저 중국어와 한국어의 사전에서 ‘코/鼻’ 관련 관용어를 조사 및 수집한 후 이를 ‘코/鼻’의 형상(形象)과 기능(技能)별 주제 표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형상 부분은 다시 모양과 위치, 구성 등으로 나누고 기능은 호흡, 냄새, 소리로 분류하여, 각 표현에 대한 대조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코/鼻’ 관련 관용어의 표현 방식 및 구현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주제어 : 관용어, 신체어, 코, 확장 의미, 대조 연구, 한국어 관용어, 중국어 관용어

1. 서론

관용어¹⁾는 한 언어를 구사하는 언중들 사이에서 그들 고유의 공통 이해를 구성하며 오랜 시간 전해져 온 생생한 구어 표현이다. 대부분의 관용어는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진정한 이해와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축자적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기에, 모국어 가 아닌 언어의 관용어는 이해가 아닌 학습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관용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사상, 습관, 생각 및 가치관 등이 두루 담겨있으므로 관용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해당 언어에 스며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관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현지인과의 대화에 더욱 녹아들어 생동감 넘치는 언어 표현을 교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관용어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대부분 언어의 관용어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으로 관용어에는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대단히 많다. 인지언어학에 의하면 사람의 경험은 신체화되는 것이며,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한 것은 신체화 경험에서 나온다고 한다.²⁾ 사람이 외부 정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을 만들 때 우리 몸의 감각기관 또는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한 경험을 기준점으로 삼아 개념을 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은 신체로부터 시작하여 사물에 적용되고 또다시 의미가 확장되며, 나아가 추상적인

-
- 1) 본고의 연구 대상은 관용어(慣用語)이다. ‘관용표현’은 관용어 외에 속담, 성어, 수수께끼 등 축자적 의미 외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적인 언어 표현을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어에서는 숙어(熟語)가 동일 개념으로 사용된다. 한국어 관용어의 형태적 측면을 보면, 단어 층위의 것부터 관용구(句), 관용절(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접미사 ‘-語’는 ‘단어’라는 뜻 외에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말’은 단어, 구, 문장 따위를 통틀어 가리키므로, 이 의미를 적용하여 여러 형태의 표현을 지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용어(慣用語)’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실재’의 본질은 우리의 신체화에 달려 있다. Vyvyan Evans,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49면 참조.

내용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는 데에도 쓰이게 된다. 사람은 모두 동일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언어 내 동일 신체어의 의미가 비슷한 기본의미에서 시작되어 유사한 의미 확장을 이루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공통된 사상이나 문화 배경, 역사 등이 반영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도 많다.³⁾ 그렇기에 다른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표현에 대한 대조 분석으로 서로의 문화 속에서 발생한 새로운 개념 또는 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 등의 차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상대방 관용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 중앙에 위치하는 코는 오관(五官)⁴⁾의 하나로, 다른 감각 기관인 눈, 귀, 입, 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이다. 후각 기관으로서의 코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기에 그 냄새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호흡 기관으로서의 코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역할 수행 외에, 코는 외모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 생김새에 따라 남녀 모두의 아름다움을 측정하는 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련의 특징적 모양들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하여, 관상학(觀相學)에서는 코를 통해 개인의 성품을 읽어내기도 하며 또 코의 모양을 개인의 재복(財福)이나 인생의 향방을 내다보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삼는 경우도 있다. 우리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코는 그 생김새에 따라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며, 개인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⁵⁾

3)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 어떤 개념을 정립할 때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거나 활용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4) 五官은 目, 舌, 口, 鼻, 耳를 말한다. 오관은 인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써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현배, 『東醫寶鑑』 五管 關聯門의 引用文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13, 4면 참조.

5) 일반적으로 코는 내면적으로 자존심이나 명예, 혹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신의 교양이 함축되어 그것이 외연적으로 얼굴 중심에 놓여 하나의 표상적 의미-자신의 자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상호·임만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코/鼻’와 관련된 관용어나 어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鼻’를 단독 주제로 연구한 것이 아닌, 신체 어휘나 안면(顔面)부 관련 관용어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황정아(2008)는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를 비교하면서 신체 관련 관용어 중 일부로 콧대 관련 관용어를 예로 들어 대조 분석하였고, 荒木京(2018)은 한·중 관용어의 인지적 의미를 대조하였는데, 은유가 나타나는 표현과 감정이 드러나는 관용어를 대조하면서 코와 관련된 관용어를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정수은(2015), 박화염(2017)은 어휘 측면의 연구를 하여, ‘코’와 ‘鼻’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관용어의 의미 양상을 대조하였다.

그리고 김태경(2005), 평잉(2014), LI XIAOTONG(2015), 루린지에(2016) 등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오관 또는 신체어휘 관련 관용어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관용어에 나타나는 감정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관용어의 형식 측면에 대한 대조, 관용어에 내포된 의미 유형에 대한 분류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나타난 ‘코/鼻’ 역시 신체 또는 안면 부위의 각 기관 관련 표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 분석되는 형태였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에서 ‘코/鼻’에 관련된 표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다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 더 많은 관용어를 다루고자 한다.

2. ‘코’와 ‘鼻’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관용어의 대조에 앞서 우선 ‘코’와 ‘鼻’의 사전적 기본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漢語大辭典』에 제시된 한국어 ‘코’⁶⁾

(芥川龍之介)의 「코(鼻)」에 나타난 나이구(內供)의 코의 상징성- 코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콤플렉스, 『일본문화연구』2010 36집, 2010, 382면 참조.

6) 코1(명)[중세:고ㅎ]

와 중국어 ‘鼻’⁷⁾의 의미를 보면, 공통적으로 ‘얼굴 가운데 솟아오른 부분’과 ‘호흡을 하고 냄새를 맡는 기관’이라는 기본의미를 갖는다. 모든 인류는 동일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신체 부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정의는 당연하게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어휘적 표현은 다르지만, 돌출된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코’와 중국어 ‘鼻’의 다른 의미를 보자면, 먼저 한국어 사전에는 ‘코가 소리를 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발성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다. 그리고 ‘코’는 그 자체로 ‘콧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⁸⁾ 잠을 자면서 무의식중에 내는 콧소리를 뜻하여 ‘코를 골다’라는 형태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코’는 낙지 등을 세는 단위명사⁹⁾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쓰여 ‘잠을 자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주로 ‘코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중국어 ‘鼻’는 기본의미 외에, 도장의 손잡이나 주전자의 주둥이 등

①[생] 오관기의 하나. 포유류의 얼굴 복판에 우뚝 솟아 숨쉬기와 냄새 맡는 역할을 하며, 발성을 돕는 중요한 기관. 들창~,~를 싸귀다,~를 찌르다. ②콧구멍에서 나오는 점액.~를 푼다. ③ 잠잘 때에 연구개 따위가 호흡에 따라 진동하여 나는 소리.~를 요란하게 푼다.

코2 (명)

①물건의 가장 앞쪽의 오뚝하게 내민 부분. ¶ 버선 ~. ② 그물이나 뜨개 같은 것의 몸을 이룬 낱낱의 고. 코와 코를 잡아 맨 눈이 모이어 그물이 되고 코와 코를 서로 끼워서 뜨개 옷을 짤.

7) 鼻(bì) 筆劃數:14 部首:鼻

①呼吸兼嗅覺的器官。②用鼻子聞。③器物的隆起或突出的部分。(1) 印紐。(2) 鞋面前端向上弓起處。(3) 古銅鏡背面的把手。(4) 花或瓜果的柄或蒂。④壺嘴；勺的口部。⑤器物上帶孔的部分。(針鼻、門鼻) ⑥ 穿兽鼻。⑦創始；開端。鼻祖。⑧方言。稱奴隸。⑨古邑名。即有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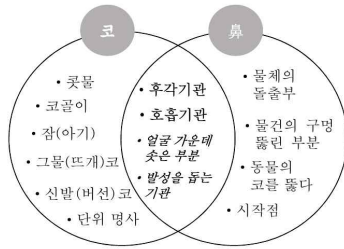
8) 코에서 나오는 끈적한 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코’와 ‘콧물’이 모두 쓰이기는 하나, 실제 사용에 약간의 제약이 있다. ‘코’의 경우는 ‘코를 푼다’의 형태로 주로 쓰이며(예①), ‘코에서 흘러나오는 점액’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적용할 때는 ‘콧물’이라고 한다(예②).

예) ① ?콧물을 푼다.

② *이번 감기의 주된 증상은 발열, 두통, 코 등이 있다.

9) 낙지 한 코는 스무 마리이며, 현재 이 단위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을 가리킨다. 또 물체에 구멍이 난 곳을 의미하여, 바늘이나 문 등의 뒤에 붙어 ‘바늘구멍(針鼻)’¹⁰⁾ 또는 ‘문의 빗장걸이(門鼻)’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鼻’는 ‘짐승의 코를 뚫다’라는 의미와 시작점, ‘비조(鼻祖)’의 뜻도 가지고 있다.



[그림1] 한국어 ‘코’와 중국어 ‘鼻’의 의미 분포¹¹⁾

위 그림에서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완전히 동일한 뜻으로 나타나는 기본의미를 뜻한다. 기본의미 외의 의미를 보면, 콧물과 코골이는 모두 코에서 나온다는 것, 콧구멍에는 켜거나 거는 것이 용이하고 물건의 튀어나온 부분은 코의 생김새와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림 속 공통의미 중 ‘발성을 돕는 부분’과 ‘얼굴의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것은 중국어 사전의 설명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코에 대한 보편적인 공통 인식에 수용되는 개념이므로 기본의미로 포함한다.

10) 한국어로 바늘의 구멍은 ‘귀’를 사용하여 ‘바늘귀’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는 ‘針(바늘)’ 뒤에 ‘鼻’를 사용하거나 ‘眼’, ‘孔’, ‘洞’을 사용한다. 영어의 경우에도 ‘눈(eye)’을 사용하여 ‘a needle’s eye’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구멍이 있는 신체 부위라 실을 끼우는 것을 연상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같은 대상을 두고 각기 다른 신체 기관을 떠올렸다는 점이 흥미롭다.

11) 사전적 의미의 분류에 의한 것으로, 확장의미의 대응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다.

3. 한·중 ‘코/鼻’ 관련 관용어의 분류 및 대조

두 언어의 관용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위해, 먼저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대상 자료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가 수록된 사전¹²⁾에서 각각 추출하고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 후 분석한다.

많이 나타나는 분류로, 두 언어의 관용어를 대조하기 위해 표현에 나타나는 감정의 종류 또는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각 표현들의 형태와 의미¹³⁾에 의한 구분이 적용되곤 한다. 이러한 분류는 하나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기관과 함께 논의될 때 함께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나, 개별 주체의 관용어를 광범위하게 다루기는 힘들다.

본고는 ‘코/鼻’의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관용어에서 드러난 확장 의미까지 살펴며 동시에 관용어를 더 넓은 범위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코의 생김새인 형상(形象) 부분과 신체기능을 하는 기능(技能) 부분으로 나누어 관용어를 분류한다.¹⁴⁾ 이 기준에 의하면 ‘코/鼻’와 관련된 거의 모든 관용어가 범위 내에 포함되기에 많은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고, 광범위한 이해가 가능하다. 분류에서 형상은 코의 모양, 콧대, 코끝, 콧구멍, 코털, 콧김, 콧물¹⁵⁾로 나누고, 기능은 호흡, 냄새, 소리로

12) 한국어 자료 출처: ①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2008. ②박영준·최경봉, 『관용어사전』, 태학사, 1996. ③최경봉, 『우리말 관용어사전』, 일조각, 2017.

중국어 자료 출처: ①商務印書館, 『漢語大詞典』,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2003. ②溫端政, 『俗語大詞典』, 商務印書館, 2019. ③溫端政, 『中國慣用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11.

13) 두 언어의 관용어에 대한 대조에서, ‘동형동의(同形同義)’, ‘동형이의(同形異義)’와 ‘이형동의(異形同義)’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져 있다.

14) 배도용(2006)은 코의 중심의미가 형태, 구성, 기능면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국면의 관계는 체계를 이루므로 이를 통해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의 확장 양상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배도용, 「우리말 ‘코’의 의미 확장과 개념망」, 『비교문화연구』 제18집, 부산외국어대 비교문화연구소, 2006, 163-182면, 167-168면 참조.

15) 콧물은 코 안에 생성되는 점액으로, 본 연구는 분비물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표현에서 파생되는 의미에 중점이 있으므로 콧김과 함께 코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

구분하여 대조 분석한다.

3.1 ‘코/鼻’의 형상(形象) 관련 관용어

안면에서 유일하게 돌출된 부분인 코는 콧날(콧대), 코끝과 두 개의 콧구멍, 그리고 코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콧구멍에서는 점액 분비물인 콧물이 생성되고 뜨거운 숨으로 나오는 콧김이 있다.¹⁶⁾ 먼저 코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을 ‘생긴 모양’, ‘형태의 변형’, ‘코의 이동/은폐/오염’, ‘코의 위치’ 등으로 표현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다음엔 코의 각 구성 부분에 관련된 관용어를 분석하기로 한다.

3.1.2 코(전체)

▷ 생긴 모양/크기

코의 전체적인 모양을 나타낸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 (1) a. 코가 우뚝하다/ 우뚝해지다
- b. 聳鼻子瞪眼
- c. 큰 코를 다치다
- d. 코 큰 소리(틀) 치다

한국어 관용어 ‘코가 우뚝하다’와 중국어 관용어 ‘聳鼻子瞪眼’의 ‘聳鼻子’는 모두 ‘코가 위로 높게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코가 우뚝하다’라는 한국어 관용어는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군다는 의

한다.

16) 공기 중의 이물질이 코의 점막과 섞여 비강 내에 생기는 코딱지는 두 언어의 관용어에 모두 등장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미를 나타내고, 중국어 ‘聳鼻子瞪眼’는 코가 치솟고 눈을 크게 부라린다는 뜻으로 화난 얼굴 모양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두 표현 모두 코가 솟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코’는 거만함을, 중국어의 ‘鼻’는 분에 찬 감정을 의미한다.

(1c)의 ‘큰 코를 다치다’는 크게 봉변이나 무안을 당했다는 의미를 뜻하여 여기서의 ‘코’는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존심이 다친 것을 의미한다. (1d)의 ‘코 큰 소리를 치다’는 잘난 척 하며 우쭐댄다는 표현이다.

- (2) a. 코(가) 세다
- b. 코 값을 하다
- c. 鼻子是鼻子, 眼是眼
- d. 不是鼻子不是臉
- e. 有鼻子有眼

코는 힘을 겨룰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서 ‘(힘 등이) 세다’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용어에 등장하는 ‘세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갖는데, (2a)의 ‘코가 세다’는 코가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의 ‘코’는 ‘고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집이 세다’는 뜻에 해당한다.

(2b)의 ‘코 값을 한다’의 ‘잘생긴 코’는 대부분 남성의 잘생긴 코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장부답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어 ‘값’은 판매하는 물건의 액수라는 본뜻 외에, 추상적인 것이나 실재적인 사물의 뒤에 쓰여 ‘그 대상에 어울리는 합당한 구실’을 의미한다.¹⁷⁾

(2c), (2d), (2e)는 모두 생김새에 관한 표현이다. ‘鼻子是鼻子, 眼是眼’은 ‘코는 코이고 눈은 눈이다’라는 말로, 원래는 얼굴이 바르게 잘생긴 것을 의미하였지만, 후에 일을 처리함에 규율이 있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묘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2d)의 ‘不是鼻子不是臉’은 ‘코가

17) ‘이름값’, ‘나잇값’, ‘얼굴값(꼴값)’, ‘허우대 값’ 등.

아니고 얼굴이 아니다’라는 말로 (2c)와 반대로 못생겼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화를 내느라 얼굴이 일그러져 꼴이 못생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e)의 ‘有鼻子有眼’은 ‘코가 있고 눈이 있다’는 말인데, 그 속뜻은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설명했음에도 그 생김새를 마치 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 형태의 변형

다음은 코의 모양이 변형된 것을 묘사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어 표현들이다. 모양의 변형은 코가 늘어나거나, 붓거나, 납작해지거나 비뚤어지는 경우로 나타난다.

- (3) a. 내 코가 석 자
 b. 콧등이 붓다
 c. 코가 납작해지다

‘내 코가 석 자’는 근심이 쌓여 맥이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는 근심거리를 나타내며, 다른 것을 살필 여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3b)의 ‘콧등이 붓다’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끓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쓰인 ‘붓다’는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의 속된 표현으로, 속에서 생긴 화가 콧등으로 표출된 것처럼 비유한 표현이다. (3c)의 ‘코가 납작해지다’는 무안을 당해 기가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에서 ‘코’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신이 떨어진 것을 뜻한다.

- (4) a. 코가 비뚤어지다
 b. 코가 비뚤어지게/비뚤어지도록
 c. 氣得鼻子都歪了
 d. 把鼻子氣歪了

‘코가 비뚤어지다’와 ‘코가 비뚤어지게/비뚤어지도록’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리게 몹시 취한 상태를 의미한다.¹⁸⁾ 중국어에도 (4c)와 (4d)처럼 코가 비뚤어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에서의 ‘비뚤어진 코’는 원인이 술에 있지 않고 분노함에 있다. ‘氣得鼻子都歪了’, ‘把鼻子氣歪了’는 화가 나서 코가 비뚤어졌다는 뜻인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표현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不是鼻子不是臉’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5) 擠鼻子弄眼睛

‘擠鼻子弄眼睛’은 코를 쥐어짜고 눈을 흘킨다는 의미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만들어 조롱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 코의 이동, 은폐, 오염

- (6) a. 코를 싸쥐다
- b. 코(를) 떼이다/ 떼다
- c. 抹(碰/蹭)一鼻子灰

‘코를 싸쥐다’는 ‘코를 손으로 감싸 가린다’는 뜻으로 무안이나 핀잔으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6b)의 ‘코(를) 떼이다/떼다’는 무안할 만큼 핀잔을 들었거나 또는 어떤 것을 못 쓰게 만들어 일을 망쳤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쓰인 ‘떼어진 코’는 은유적 비유로, 망신당한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c)의 ‘抹(碰/蹭)一鼻子灰’에서 중국어 ‘灰’는 먼지를 의미하는 말로, 코에 먼지를 뒤집어썼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푸대접을

18) 박웅석(2022)은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셨다’라는 말은 코의 형태에 변화를 준 표현이라고 하며,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 코가 무너진 것으로 술에 취해 균형 상실을 상징한 모습을 비유한다고 하였다. 박웅석, 『바디버스』, (주)박영사, 2022, 56면 참조.

받거나 거절을 당했다는 것을 코가 엉망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나타낸 말이다.

▷ 코의 위치

- (7) a. 코앞에 닿치다 /코앞으로 다가오다
- b. 코앞에 두다
- c. 코앞도 보지 못하다

‘코앞’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의미하여, (7a)의 ‘코앞에 닿치다’, ‘코앞으로 다가오다’는 어떤 일의 발생이 임박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7b)의 ‘코앞에 두다’는 물건이 바로 앞에 있다는 의미이고, (7c)의 ‘코앞도 보지 못하다’는 미래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 식견이나 안목이 짧은 것을 뜻한다.

- (8) a. 擺在鼻子底下
- b. 코 아래 진상

‘擺在鼻子底下’는 코앞에 늘어놓는다는 의미로, 바로 앞 가까이에 펼쳐놓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경우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눈앞’과 ‘코앞’이 모두 쓰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코앞(鼻前)’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눈앞(眼前)’만 쓰인다. 코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나타낼 때 (8a)처럼 ‘鼻子底下(코 아래)’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대화에서는 ‘眼前’을 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어에서는 ‘코 아래’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런데 (8b)에서 ‘코 아래’라고 쓴 것은 ‘진상을 한다’는 것으로윗사람에게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린다는 방향성을 담은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

또한 코가 눈에 쉽게 띄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 (9) a. 코에 걸다
- b. 把好心眼掛在鼻子上

얼굴의 한가운데 위치한 코는 이목구비 중 가장 눈에 띄는 부위에 해당하여 남에게 잘 보이는 곳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돌출되어 있으므로 무언가를 걸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 (9a)의 예문 ‘코에 걸다’는 ‘무엇을 자랑삼아 내세우다’라는 뜻이다. (9b)의 ‘把好心眼掛在鼻子上’은 ‘좋은 마음을 코에 걸다’라는 뜻인데, 이는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의 두 표현에서 마음을 남에게 보일 수 있도록 ‘걸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상적 의미인 ‘마음’을 걸 수 있는 ‘실물’로 개념화한 은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른 부위와 쓰임

- (10) a. 눈코 사이
- b. 鼻子不離腮

(10a)에서 ‘코’는 ‘눈’과 함께 쓰였는데, 눈과 코 사이는 매우 밀접하므로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10b)의 ‘鼻子不離腮’에서는 ‘코가 뺨을 떠날 수 없다’는 것으로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 (11) a. 코 아래 입
- b. 鼻子底下長着嘴巴

(11a)의 ‘코 아래 입’은 코 바로 아래 입이 붙어있다는 것으로, ‘눈코 사이’처럼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한다. (11b)의 ‘鼻子底下長着嘴巴’는 ‘코 아래 입이 있다’는 말로 (11a)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걸 코가 아니라 입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코 아래 입이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것이니 ‘사람마다 발언 및 판단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불명확한 일은 입을 열고 물어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

▷ 색깔

- (12) a. 白鼻子
 b. 鼻梁子上抹白¹⁹⁾
 c. 糟鼻子不吃酒
 d. 鼻青眼腫

‘白鼻子’는 ‘하얀 코’라는 뜻으로 간사한 성격의 나쁜 인물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은 중국의 전통극인 경극(京劇)과 관련이 있다. 경극에서 얼굴에 색을 칠하는 분장인 ‘臉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색을 사용해 그 배역의 성격 및 특성을 나타내기에 얼굴의 색으로 그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예로, 붉은색을 칠하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긍정적인 인물을 나타내고, 흰색을 칠하면 부정적인 인물로 사악함을 나타낸다.²⁰⁾ 경극에서 어릿광대 역을 맡은 배우는 코에 하얀 칠을 하고 간사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비롯되어 ‘白鼻子’는 부정적 측면으로 간사함을 상징한다. (12b)의 ‘鼻梁子上抹白’도 ‘콧대에 흰색 칠을 하다’

19) ‘鼻梁子上抹白’에는 콧대(鼻梁子)와 색(白)이 모두 들어있으나, 이 표현에서 콧대가 차지하는 의미보다 색의 의미가 주를 이루므로 색으로 분류하였다.

20) 京劇臉譜借鑒了許多民間美術的色彩應用方法，使得臉譜的色彩簡單、明亮、沖擊性強。同時，不同顏色常被賦予了不同的感情語義，象征著某壹個或某壹類的品格、性情和氣質。例如，紅色表示耿直、忠誠，多表現正面角色，白色則表現奸邪的反面角色。王歡歡，「京劇臉譜藝術在書籍設計中的應用」，《大眾文藝》2022年11，2022，68-70면，69면 참조.

라는 뜻으로 역시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조롱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12c)의 ‘糟鼻子不吃酒’는 ‘딸기코도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酒)糟’는 술지게미를 뜻하며 ‘糟鼻子’는 보통 술을 많이 마셔서 빨개진 코를 뜻한다. 그러나 코가 빨개지는 것은 음주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서, 피부병의 일종으로 술을 먹지 않아도 빨갱게 되는 코 역시 ‘糟鼻(주사비)’라고 칭한다. 그리하여 어떤 일에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경우 이 표현이 사용된다. (12d) ‘鼻青眼腫’은 코가 파래지고 눈이 붓다는 의미로, 심한 타격이나 좌절을 겪어 진퇴유곡의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 동물의 코

- (13) a. 개 콧구멍으로 알다
- b. 낫기는 개코가 나아
- c. 貓眼狗鼻子
- d. 牛鼻子
- e. 難捉鼻
- f. 勾鼻子(鷹勾鼻子)²¹⁾

현대 사회에서 ‘개’라고 하면 사람과 매우 가까운 동물로 가족에 버금가는 존재로 생각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온 속담이나 관용어에 등장하는 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13a) ‘개 콧구멍으로 알다’라는 표현 역시 그러하여, (옛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짐승인 개의 얼굴에 붙어있는 콧구멍이면 하찮기가 그지없는 물건이라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다. (13b) ‘낫기는 개코가 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다.

21) 한국어에서도 코의 모양과 관련하여 ‘매부리코’, ‘주먹코’, ‘들창코’ 등의 표현이 있는데, 사전에 관용어로 기재된 부분이 없어 논외로 한다.

(13c)의 ‘貓眼狗鼻子’는 ‘고양이의 눈, 개의 코’라는 뜻으로, 뛰어난 시력을 가진 고양이와 냄새를 잘 맡는 개를 예로 들어 누군가의 감각기관이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d)‘牛鼻子’²²⁾는 사물의 주된 모순이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관건을 가리킨다. 사람이 소를 몰 때는 먼저 소의 코를 틀어줘야 자신의 통제 하에 둘 수 있기에 제압을 위해서는 소의 코가 관건이라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다. (13e)‘難捉鼻’의 ‘鼻’는 소의 코를 의미한다. 코를 잡아 포획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통제가 힘든 상황을 나타낸다.

(13f)‘勾鼻子(鷹勾鼻子)’는 매의 코처럼 굽은 코인 매부리코를 가리킨다. 중국의 관상학에서, 콧대가 넓고 안으로 굽은 매의 부리 모양 코를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상 신의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²³⁾

3.1.2 콧대, 콧날

‘콧대/鼻梁’는 코 가운데 대처럼 쪽 뺨은 곳을 가리키며, 그와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4) a. 콧대 높다
b. 콧대 세다
c. 콧대(를) 세우다

22) ‘牛鼻子’의 또 다른 의미로 중국에서 옛날 도사(道士)들을 놀리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도사들의 쓰고 다니는 모자가 마치 소의 코 모양과 비슷하여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道士因道士帽外形與牛鼻形似而有了“牛鼻子”的稱號。郭仕超, 「淺論漢語詞匯中“牛”的文化蘊涵」, 『漢字與歷史文化』 2021年 21, 2021, 178-181면, 178면.

23) 鷹鉤鼻。鼻尖面積較大, 並且向內彎曲, 呈鷹鉤狀。鷹鉤鼻的人, 很少會隨波逐流, 很大的快樂在於追求自己認定的目標, 通常比較叛逆。張月音, 「探究動畫角色造型中五官形體與性格的邏輯關聯」, 『美術大觀-藝術理論』 2011 Art Panorama, 2011, 94면, 94면 참조.

- d. 콧대 꺾다
- e. 콧대가 꺾이다
- f. 콧대 낮추다
- g. 야코(가) 죽다
- h. 야코(를) 죽이다
- i. 登鼻子
- j. 登着鼻子撒尿

한국어 코 관련 관용어에는 ‘콧대’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데, 관용어에서 콧대는 비유적으로 우쭐하고 거만한 태도를 의미한다. (14a)의 ‘콧대 높다’와 (14b)의 ‘콧대 세다’²⁴⁾는 자존심이 강해 상대방에게 굽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14c) ‘콧대를 세우다’는 자존심을 높이는 행위를 뜻한다. (14d)의 ‘콧대를 꺾다’는 ‘상대방의 거만한 태도를 꺾어 기를 죽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행동이 가미된 표현은 한국어에서만 보이는 것인데, ‘꺾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코의 줄기인 콧대도 나무의 줄기처럼 꺾어 무너뜨릴 수(destroyable)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은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14e)의 ‘콧대가 꺾이다’는 피동의 의미로 누군가에 의해 ‘콧대가 꺾인’ 결과가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며, (14f)의 ‘콧대 낮추다’는 스스로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한풀 꺾는 것을 뜻한다.

(14g)의 ‘야코’는 ‘콧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부러뜨릴 수 있는’의 속성이 없고 성질이나 기운 따위를 눌러 없앤다는 뜻으로 ‘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4i)의 ‘登鼻子上臉’은 ‘코를 밟고 얼굴로 오르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갈수록 더 과하게 굴어 점점 기어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며, (14j) ‘登着鼻子撒尿’는 코를 밟고 오줌을 싼다는 뜻으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登鼻子上臉’과 ‘登着鼻子撒尿’는 모두 ‘코(鼻子)’라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딛고 올라가는 코의 부분이라면 콧

24) 앞서 나온 ‘코가 세다’와 같은 의미이다.

대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표현은 전체로 부분을 나타내는 환유적 표현이라 하겠다.

(15) 上臉橫打鼻梁

‘上臉橫打鼻梁’은 집게손가락을 콧대의 가로로 대는 것을 뜻하는데, 어떤 일에 끝까지 책임을 해내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상술한 관용어들의 의미로, 한국어 관용어에서 ‘콧대’는 자존심이나 거만한 태도를 나타내며, 중국어에서 ‘鼻梁’은 자존심 외에도 책임이나 위를 향하는 발판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코끝

코끝은 콧구멍 위 코 끝부분의 튀어나온 곳을 가리키며, 관련된 관용어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6) a. 코끝이 시큰하다
- b. 鼻酸

‘코끝이 시큰하다’는 슬픔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이다. 중국어 ‘鼻酸’ 역시 코가 시큰하다는 뜻으로 역시 가슴이 찡하게 슬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두 언어 모두 코에서 느껴지는 슬픈 느낌을 미각에 관련된 ‘시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냈고, 이는 슬픈 감정을 맛에 비유한 은유적 표현이다.

- (17) a. 코를 맞대다
- b. 코를 막듯
- c. 碰到鼻子尖上

d. 碰鼻頭²⁵轉彎

e. 拿着軟的作鼻子頭

‘코를 맞대다’는 ‘서로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고, (17b)의 ‘코를 박듯’은 머리를 깊숙이 숙여 코가 한참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코가 맞닿는 부분과 향하는 부분은 코끝인데 단지 ‘코’라고만 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전체가 일부를 나타내는 환유적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다.

(17c)의 ‘碰到鼻子尖上’은 ‘코끝에 부딪히다’라는 뜻으로 직접 사물이나 사람을 맞닥뜨린다는 의미이며 (17d)의 ‘碰鼻頭轉彎’은 코끝에 부딪히면 방향을 튼다는 뜻으로 좌절을 만나면 추구하는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다. (17e)의 ‘拿着軟的作鼻子頭’는 ‘무른 것을 코끝으로 삼는다’라는 뜻으로, ‘무른 것’은 약한 사람을 뜻하고 여기서 ‘鼻子頭’는 코의 시작점을 의미하기에 연약한 사람부터 공략한다는 뜻이다.

(18) a. 코를 잡아도 모르겠다

b. 捱鼻頭

(18a)의 ‘코를 잡아도 모르겠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캄캄하다는 뜻이다. 코를 잡을 때는 코의 전체가 아닌 끝부분을 움켜쥐게 되므로 여기의 코 역시 코끝을 의미하는 환유적 표현이다. (18b)의 ‘捱鼻頭’는 코끝을 누른다는 의미로,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뜻한다.

(19) a. 코에 붙이다/바르다

25) 한국어에 ‘콧대’가 다수 등장했다면 중국어에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코끝(鼻子尖/鼻子頭)’이 많이 언급된다. ‘鼻(子)尖’와 ‘鼻(子)頭’는 모두 ‘코끝’을 의미하는데, 이중 ‘鼻(子)頭’에 ‘頭’가 쓰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頭’는 시작점을 의미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코의 동일한 부위를 ‘코끝’이라고 하는데 반해 중국어는 이곳이 코가 시작되는 곳으로 본다는 것에서 신체 구조에 대한 인지적 차이를 볼 수 있다.

- b. 鼻子尖
- c. 只見鼻子尖下三寸
- d. 盯着自個的鼻子尖兒

(19a)의 ‘코에 붙이다/바르다’는 음식 등의 양이 너무 적어서 코에 바를 정도도 되지 않게 모자란다는 뜻이다.

(19b)의 ‘鼻子尖’은 코끝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나타내며, (19c)의 ‘只見鼻子尖下三寸’는 코 아래 짧은 거리만 본다는 것으로 식견이 얇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다. (19d)의 ‘盯着自個的鼻子尖兒’ 역시 ‘자신의 코끝만 본다’는 것으로, 눈앞의 가까운 것들만 볼 줄 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20) a. 코끝도 못 보다
- b. 餬不着鼻尖上甜兒棗
- c. 鼻頭不對人中

코끝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는 작은 부분으로, (20a)의 ‘코끝도 못 보다’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아 볼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20b)의 ‘餬不着鼻尖上甜兒棗’는 코끝에 걸려있는 달콤한 대추를 맛볼 수 없다는 것으로, 좋은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20c)의 ‘鼻頭不對人中’은 코끝이 인중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는 말마다 모순이 되고 맞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3.1.4 콧구멍

- (21) a. 코를 꿰이다/ 코가 꿰이다
- b. 코를 걸다
- c. 串鼻子
- d. 牽鼻子

e. 鼻子穿上索子

한국어 관용어에는 직접적으로 ‘콧구멍’이라는 말을 사용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코를 꿰거나 거는 것은 콧구멍에 할 수 있는 일 이므로, 여기서도 전체인 ‘코’로 일부분인 ‘콧구멍’을 나타내는 환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a)의 ‘코를(가) 꿰이다/꿰다’는 약점이 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21b)의 ‘코를 걸다’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문제 삼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1c)의 ‘串鼻子’의 ‘串’은 꼬치 등으로 꿰다는 뜻인데, 여기서 코를 꿰다는 표현은 ‘서로 코를 뚫듯 결탁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이때의 코 역시 콧구멍을 가리킨다. (21d)의 ‘牽鼻子’는 ‘코를 끌고 간다’는 뜻으로 타인을 조종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여 자신과 같은 길을 가도록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여, 여기서 쓰인 ‘鼻子’도 코를 꿰는 곳인 콧구멍을 뜻한다. (21e)의 ‘鼻子穿上索子’에서 ‘索子’는 쇠사슬이라는 뜻으로, 코에 쇠사슬을 꿰었으니 남에게 지배당하거나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1)의 표현들은 모두 ‘코/鼻子’라는 말로 코의 일부인 콧구멍을 나타낸 환유적 표현이다.

콧구멍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있어, 이를 통해 도구로 걸어 켈 수 있게 생긴 구조로 일단 코를 꿰이면 벗어나기 어렵기에, 관용어에서는 자칫 잘못 잡히면 남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나 남에게 잡힌 약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22) a. 三個鼻子管
 b. 鼻孔朝天
 c. 一鼻孔出氣

(22a)의 ‘三個鼻子管’은 ‘코에 난 세 개의 관(pipe)’으로, 여기서 관은 콧구멍을 의미하는데, 콧구멍은 세 개나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쓸데없는 일에 괜히 관여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22b)의 ‘鼻孔朝天’은 콧

구멍이 하늘을 향한다는 뜻으로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풍자하는 표현이다. (22c)의 ‘一鼻孔出氣’는 한 콧구멍으로 김을 내뿜는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져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의미이다.

3.1.5 코털

코털과 관련된 표현은 한국어에서 다음의 한 가지 표현만 나타났다.

(23) 코털이 세다

‘코털이 세다’는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아 걱정되어 애가 탄다는 의미로, 걱정 끝에 코털까지 하얗게 세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 관용어에는 코털이 등장하는 표현이 없다.

3.1.6 콧물

- (24) a. 코 먹은 소리
 b. 코 묻은 돈
 c. 코(를) 흘리다
 d. 拖鼻涕朋友

(24a)의 ‘코 먹은 소리’는 코가 막혀서 콧속이 울리며 나는 소리를 의미하며, (24b)의 ‘코 묻은 돈’은 어린아이가 가진 적은 돈을 뜻하는데, 아이들이 콧물을 잘 흘리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 ‘아이가 흘린 코가 묻은 돈’이라는 뜻으로, 차마 어른이 손대기에는 부끄러운 돈이라는 표현이다. (24c) ‘코를 흘리다’는 코를 흘리는 아이처럼 미숙하거나 어리다는 뜻을 나타내며, 이 세 표현에 등장한 ‘코’는 모두 ‘콧물’을 뜻한다.

(24d)의 ‘拖鼻涕朋友’는 ‘콧물을 (함께) 닦던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함께 한 죽마고우를 의미한다.

- (25) a.코(를) 풀다
- b.코(를) 빠뜨리다

관용어로 쓰인 ‘코를 풀다’는 일부러 일을 방해하여 결과를 망치게 훼방 놓는 것을 말한다. (25b)의 ‘코를 빠뜨리다’는 음식 같은 것에 코를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역시 어떤 일에 훼방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6) a. 三行鼻涕兩行淚/一行鼻涕兩行淚
- b. 擗鼻涕,彈眼淚
- c. 擦鼻涕,抹眼淚
- d. 一把鼻涕,一把眼淚
- e. 코를 훌쩍거리다²⁶⁾
- f. 鼻涕往上流

중국어 관용어에서 콧물은 주로 우는 모양새를 나타낸다. ‘三行鼻涕兩行淚/一行鼻涕兩行淚’는 ‘콧물 세 줄 눈물 두 줄/콧물 한 줄 눈물 두 줄’이라는 뜻이고, (26b)의 ‘擗鼻涕,彈眼淚’는 콧물을 던지고 눈물을 튕긴다는 것이다. (26c)의 ‘擦鼻涕,抹眼淚’는 ‘콧물을 닦고 눈물을 문지른다’는 말이고 (26d)의 ‘一把鼻涕,一把眼淚’는 ‘콧물 한 줌, 눈물 한 줌’이라는 말로, 이 네 가지 표현들은 모두 아주 슬프게 우는 모양을 표현한다. (26e)의 ‘훌쩍거리다’는 울면서 코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뜻으로, 역시 우는 모양을 나타낸다.

(26f)의 ‘鼻涕往上流’는 ‘콧물이 위로 흐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평범한 도리에 맞지 않고 엉뚱하게 흘러간다는 의미이다.

26) ‘코를 훌쩍거리다’는 관용적 의미 외에 ‘코를 흘리지 않으려 자꾸 들이마시다’는 뜻도 있다.

3.1.7 콧김

- (27) a. 코를 불다
- b. 콧김이 세다
- c. 仰鼻息

(27a)의 ‘코를 불다’는 콧김을 내뿜는다는 말로, 여기서 ‘불다’는 바람을 일으키며 뜨거운 김을 낸다는 뜻이다. 주로 힘들여 쉼쉼거리는 소리를 내며 일하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묘사할 때 쓰인다.

(27b)의 ‘콧김이 세다’는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세다는 뜻이고, (27c)의 ‘仰鼻息’는 ‘콧김에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27b)와 (27c)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난 ‘콧김/鼻息’의 의미가 모두 힘 있는 세력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코/鼻’의 형상 관련 관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하위 분류	표현	공통의 미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의미	중국어에만 나타나는 의미
코 전체	코 (모양)	코가 솟다 簷鼻子瞪眼		잘난 체하다	화가 나다
		코가 크다		대장부답다	
		코가 있다 鼻子是鼻, 眼是眼			잘생겼다, 뚜렷하다
	변형	코가 빠지다, 붓다		근심이 쌓이다	
		코가 비뚤어지다		취하다	화가 나다

코 전 체		氣得鼻子都歪了 코를 일그러 뜨리다 擠鼻子弄眼睛			놀리다	
	이동 오염 소멸	코 떼다, 싸취다 코에 먼지를 뒤집어쓰다 抹一鼻子灰		창피당하다	거질 또는 창피당하다	
	위치	코 앞		가깝다		
		코 아래 擺在鼻子底下	가깝다	(가깝게) 진상하다	위치가 가깝다	
		코에 걸다 把好心眼掛在 鼻子上	자랑하 다			
	다른 부위 와 쓰임	입 鼻子底下長着嘴 巴		가깝다	할 말을 하다	
		눈		가깝다		
		뺨 鼻子不離腮			가깝다	
	색깔	흰색 白鼻子				부정적 의미
		붉은색 糟鼻子不吃酒				억울함
	동물 의 코	개코 貓眼狗鼻子		하찮음	말달한 후각, 정보통	
		소의 코(뚜레) 牛鼻子			관건, 일의 장악	
		매부리코 勾(鷹勾)鼻子			굽은 코, 부정적 측면	
	콧대	높다, 세다		자존심, 거만함		

	딘다, 뺏다 登鼻子			발판
	꺾다, 꺾이다 (야코를) 죽이다		상대방의 거만함을 제압, 파괴	
코끝	시다 鼻酸	슬픔		
	맞대다		가깝다	
	코끝 鼻子尖	짧은 식견	양이 적다	적은 이익
콧구멍	빼다, 걸다 牽鼻子串鼻子	약점, 문제		지배당함 야합
	통하다 一鼻孔出氣		생각의 일치	
콧구멍	치켜들다 鼻孔朝天		거만함	
	세 개의 콧구멍 三個鼻子管		쓸데없는 일	
코털	세다 (하얗게)	일이 안 풀림		
콧김	의지하다			남의 영향력에 기댐
	세다		영향력 강함	
	불다		씩씩거리다	
콧물	흘리다 拖鼻涕朋友	어리다		
	떨어뜨리다		혜방 놓다	
	흘쩍거리다		울다	

	던지다/ 닦다 擗鼻涕彈眼淚 擦鼻涕,抹眼淚			울다
	흐르다 鼻涕往上流			일의 흐름

[표1] 한·중 ‘코/鼻’의 형상(形象) 관련 관용어의 의미 분류

코의 형상 및 구성 부위 관련 표현에서, 비슷한 의미로 나타난 표현으로는 ‘코를 이용해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 ‘슬픔을 코끝이 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 ‘작거나 부족함을 나타내는 코끝’, 그리고 콧김이 ‘영향력’을 상징하며, ‘코를 꿰이면 남에게 속박된다는 것’, ‘콧물을 흘리는 것은 어린아이를 나타낸다’는 정도가 비슷한 의미로 나타났다.

이렇듯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양한 관용어에서 표현 방식은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의미는 같지 않은 표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살펴본 결과 다음의 몇 가지에 주목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코가 솟다’가 한국어로는 거만한 태도를 나타내지만, 중국어로는 화가 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었다. 한국어에서 코가 크다는 것은 잘생긴 것을 의미하거나 남자답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중국어에서는 코가 큰 것이 아니라 코가 ‘커진’ 것이며 이것은 화가 난 것으로 인해 생겨난 모양새로 묘사된다.

두 번째로 같은 표현에 의미가 다른 것으로 ‘비뚤어진 코’, ‘개코’ 그리고 ‘코와 입’의 관계가 두드러졌다. 한국어에서는 코가 비뚤어진 것은 술에 취해서 생기는 현상이라 묘사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화가 나서 코가 비뚤어진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여러 표현에서 보이듯이, 중국어 관용어에서 코의 변형은 주로 화가 나서 일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의 코가 나온 경우, 한국어 관용어에서는 개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 있었지만, 중국어 관용어에서는 개의 뛰어난 후각 기능을 부각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에 비유하였다.²⁷⁾

27) 한국어에서 잘 쓰이는 표현으로, 냄새 등에 민감한 사람을 ‘개코’라고 칭하기도

세 번째로, 한국어에서는 자존심의 상징으로 자주 표현되는 ‘콧대’가 중국어 관용어에서는 출현 빈도도 높지 않을뿐더러 한국어만큼 거만함이나 자존심에 대한 큰 상징성을 갖지 않았다. 그에 더해, 한국어 관용어에는 ‘콧대를 꺾다’, ‘콧대를 누르다’ 등으로 행동으로 옮겨 상대방의 자존심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국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고 무시하는 태도로 던고 올라서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정도만 나타낼 뿐이었다.

네 번째로, 중국어 관용어에 나타난 콧물은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것 외에 일이 흘러가는 방향을 의미하며, 콧물이 휘방을 뜻하는 의미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3.2 ‘코/鼻’의 기능(技能) 관련 관용어

3.2.1 호흡

- (28) a. 눈코 뜰 새(사이) 없다
b. 코 막고 숨 막힌다고(답답하다고) 한다

먼저 ‘눈코 뜰 새 없다’는 ‘너무도 바빠서 눈을 뜨고 코로 숨 쉴 여유도 없다’는 것으로 눈과 코의 기본 기능조차 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28b)의 ‘코 막고 숨 막힌다고(답답하다고) 한다’는 스스로 코를 틀어막고는 답답해한다는 뜻으로 제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여겨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중국어의 ‘鼻’ 관련 관용어에서는 호흡과 연관된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어 관용어에서 냄새를 잘 맡는 것을 개의 코에 비유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3.2.2 냄새

(29) 鼻子靈

여기에 쓰인 ‘靈’은 ‘예민하다’ 또는 ‘민감하다’의 뜻으로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후각 기관이 예민하거나 정보에 능통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어의 ‘코’ 관련 관용어에서는 냄새와 연관된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3.2.3 소리

- (30) a. 코웃음(을) 치다
- b. 콧노래(를) 부르다/나오다
- c. 콧방귀(를) 뀌다/날리다
- d. 콧방귀도 안 나오다
- e. 嗤鼻子
- f. 嗤之以鼻

‘코웃음’은 코끝으로 가볍게 웃는 비난조의 웃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30a) ‘코웃음을 치다’는 깔보고 비웃는다는 뜻이다. ‘콧노래’는 입을 열지 않고 코를 이용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것을 말하며, (30b)의 ‘콧노래(를) 부르다’와 ‘콧노래가 나오다’는 일이 잘되어 기분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콧방귀’는 코에서 막힌 숨을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다른 이가 한 말이 아니꼬워 들은 체도 하지 않을 때 쓰이는 표현이다 (30c)의 ‘콧방귀를 뀌다/날리다’는 우습게 여기거나 어떤 말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며 (30d)의 ‘콧방귀도 안 나오다’는 대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가소롭다는 뜻을 나타낸다.

(30e)의 ‘嗤鼻子’와 (30f)의 ‘嗤之以鼻’는 ‘코로 소리를 내다’라는 표현으로 남을 깔보고 비웃는 것을 뜻한다. ‘嗤[chī]’는 문어적 표현으로 ‘(소리를 내어) 비웃거나 조소한다’는 뜻인데, ‘콧방귀를 꺾다/날리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상기한 ‘코/鼻’의 기능(技能) 관련 관용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표현	공통의미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의미	중국어에만 나타나는 의미
호흡	(숨 쉬다)		짧은 틈	
냄새	코가 영민하다 鼻子靈			예민한 후각, 정보에 능통
소리	코웃음, 콧방귀		비웃다	
	코로 소리를 내다 嗤鼻子			비웃다, 무시하다
	콧노래		기분이 좋다	

[표2] 한·중 ‘코/鼻’의 기능(技能) 관련 관용어의 의미 분류

코의 기능에 관련된 표현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서 적게 나타났다. 중국어 관용어에는 코의 호흡 기능 관련 표현은 없었고, 한국어에는 코의 후각 기능에 관한 관용어가 없었다.

코에서 나오는 소리와 관련해 한국어에는 다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중국어는 ‘코로 소리를 내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라는 한 가지 유형의 표현만 보였다. 또한 한국어는 코에서 나는 소리를 ‘코웃음’, ‘콧방귀’, ‘콧노래’라고 명칭을 부여해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는 ‘코에서 소리를 내어 대응하다’의 표현으로 풀어 설명하여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 ‘코/鼻’ 관련 관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두 언어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과 그 의미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코’와 ‘鼻’의 사전적 의미와 확장의미를 살펴보고 중국어와 한국어 관용어 사전에서 각각의 관련 관용어 표현을 수집하여 분류하였는데, 관용어를 코의 형상(形象)과 기능(技能) 부분으로 나누었고, 각 부분의 하위 분류 표현에 대한 의미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대조 결과, 동일한 신체 구조에 속하는 코를 주제로 나타난 관용어임에도 실제 쓰이는 의미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에서는 코의 크기로 자존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콧대 관련 표현이 많았는데, 표현들은 비꼬는 풍조의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기를 꺾어 부러뜨려버리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고 콧대로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도 한국어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정 표현에서, 중국어에서는 화가 난 것을 나타낼 때 코가 뒤틀린 것으로 묘사하였고, 한국어는 얼굴이 붉는 것과 같이 코가 붉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공통으로 나타낸 감정 표현으로는 ‘코가 시다’가 있었는데, 슬픔의 느낌을 맞을 나타내는 ‘시다’라는 말로 전달해서, 두 언어의 유사한 은유적 표현을 볼 수 있었다. 슬프거나 기쁜 감정에 관해서는, ‘콧노래를 부르다’라는 한국어 관용어를 제외하고, 두 언어의 ‘코/鼻’ 관련 관용어 모두 화가 나거나 슬픈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신체 관련 관용어와 마찬가지로 ‘코/鼻’ 관련 관용어에도 비유적 표현이 다수 나타났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코/鼻

(子)’가 ‘콧물(鼻涕)’, ‘콧대(鼻梁)’, ‘콧구멍(鼻孔)’ 등을 나타내어 전체가 부분을 지칭하는 환유적 표현이 다수 등장했으며, ‘감정을 코에 걸다’, ‘코가 솟다’ 등으로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 또한 많이 사용되어 의미를 강조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코/鼻’를 주제로 한 관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현 방식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았다. 관용어는 그 언어의 문화와 사람들의 오랜 생각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용어가 내포하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에 대한 향후의 보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 Contrast Study on Expressions and Meanings of Nose-related Idioms in Korean and Chinese

Jung, Yoonju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contrast the various meanings of idioms related to the nose in Korean and Chinese. The nose is one of the five sensory organs of humans. It is a very important body organ as an olfactory organ that smells and a respiratory organ that allows us to breathe.

According to cognitive linguistics, when establishing a linguistic concept, humans first start with the body to grasp the concept of objects, and develop them into concepts of abstract objects. Various words for body parts also appear in idioms, starting with the original physical meaning, and develop into various meanings such as emotions, characters, situations, standards, value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original meanings of the body.

To analyze specific semantic patterns that have occurred differently in the cultures of both languages, this paper classifies and contrasts various expressions of idioms related to the nose in Korean and Chinese. For the contrast analysis of related idioms, the idioms related to the nose are collected in the dictionary of Chinese and Korean, and then divided into the expressions about appearance of the nose and about its function.

In addition, the appearance part is divided into shape, position, composition, etc., and the function part is classified into breathing, smelling, and sound. Through the contrast of each expression, we analyz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methods and implementation meanings of the idioms related to the nose in Korean and Chinese.

Key words : idioms, body-related words, nose, extended meanings, contrast study, Korean idioms, Chinese idioms

[참고문헌]

■ 사전자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2008.
박영준·최경봉, 『관용어사전』, 태학사, 1996.
최경봉, 『우리말 관용어사전』, 일조각, 2017.
商務印書館, 『漢語大詞典』,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2003.
溫端政, 『俗語大詞典』, 商務印書館, 2019.
溫端政, 『中國慣用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011.

■ 단행본

- 김광해, 『어휘 현상과 교육』, 박이정, 2008.
남성우, 『국어의미론』, 용언문화사, 1986.
문금현,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1999.
박응석, 『바디버스』, (주)박영사, 2022.
심재기, 『국어어휘론』, 서울:집문당, 2000.
임지룡, 『국어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1992.
Vyvyan Evans,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馬國凡, 『諺語·歇後語·慣用語』, 遼寧人民出版社, 1961.
王巖, 『漢語熟語的文化認知』, 大象出版社, 2012.
胡裕樹, 『現代漢語』, 上海教育出版社, 1962.

■ 논문

- 김도연, 「한국어 관용 표현에 나타난 개념화 양상 연구」, 『문화와 융합』 제44권 5호, 2022, 1259-1283면.
김태경, 「현대 중국어 오관에 관련된 관용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1-82면.
루린지예, 「한중 감정표현 오관 관용어 의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1-79면.

- 박영순, 「관용어에 대하여」, 『국어교육』5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5, 105-121면.
- 박화염, 「한중 두부 신체어의 확장 의미 대조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213면.
- 배도용, 「우리말 ‘코’의 의미 확장과 개념망」, 『비교문화연구』제18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6, 163-182면.
- 윤상호·임만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코(鼻)」에 나타난 나이구(内供)의 코의 상징성- 코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콤플렉스」, 『일본문화연구』제36집, 2010, 379-392면.
- 이암, 「비교언어적 유사성, 투명도 및 과제 유형에 따른 한국어 관용어 이해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겨레어문학』제64집, 2020, 231-259면.
- 임지룡,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배달말』59집, 2016, 1-42면.
- 정수은, 「한·중 신체어의 다의구조 대조연구, -눈, 코, 입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103면.
- 최현배, 「『東醫寶鑑』五管 關聯門의 引用文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4면.
- 최혜경, 「중한 관용어의 생성원인 및 과정 - 인지언어학 관점으로」, 『한중경제문화연구』제4권, 2015, 121-144면.
- 평 잉, 「한국어 신체어휘 관용표현에 대한 중국어 대응표현 대조연구」, 호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84면.
- 황정아, 「한·중 관용어의 표현 양상과 내포 문화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325면.
- LI Xiaotong, 「한·중 신체어의 의미 대조 연구 - 한국어 ‘코’, ‘입’, ‘귀’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111면.
- 郭仕超, 「淺論漢語詞匯中“牛”的文化蘊涵」, 『漢字與歷史文化』2021年21, 2021, 178-181면.
- 郭風嵐, 「漢語熟語研究的新視角」, 『世界漢語教學』1998年第2期, 1998, 103-105면.
- 郭海洋, 「熟語範疇的家族相似性」, 『學術交流』2016年11月 總第272期 第11期, 2016, 149-154면.
- 荒木京, 「漢韓人體慣用語的認知對比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18, 1-211면.
- 王耀輝, 「簡論熟語的交叉與轉化」, 『臨沂師專學報』第20卷第1期, 1998, 50-52면.
- 王寅, 「認知語言學的意義新觀：體驗性概念化-十三論語言體驗性」,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第31卷第4期, 2008, 1-6면.
- 王歡歡, 「京劇臉譜藝術在書籍設計中的應用」, 大眾文藝 2022 11, 68-70면.
- 張月音, 「探究動畫角色造型中五官形體與性格的邏輯關聯」, 『美術大觀-藝術理論』2011

Art Panorama, 2011, 94면.

陳偉紅, 「中韓兩國語言文化對比研究」, 『文化綜合』 2021年 第4期, 2021, 123-124면.

투고일: 2023.03.15 심사일: 2023.04.08 게재확정일: 2023.04.11